

코스콤, 클라우드 최적화 된 여의도 新 데이터센터 구축

»» 프레스룸

금융IT 발전을 위한 코스콤의 다양한 활동들을 빠르게 알려 드립니다.



코스콤 여의도 데이터센터 개소식

- 1년6개월에 걸쳐 클라우드 서비스에 최적화된 데이터센터 구축
- 회선 속도 최대 4배 향상...모든 장애 대비해 네트워크 이중화

□ 코스콤이 속도와 효율성 차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센터를 구축했다.

□ 코스콤(사장 정지석)은 기존 여의도 데이터센터(이하 DC)의 기반시설을 대폭 업그레이드해 신규 전산실로 옮기는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안정운용을 기원하기 위한 개소식을 간소하게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. (*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행사 참가인원 및 규모 최소화)

□ 코스콤은 '96년 준공 후 20여 년 동안 사용하여 노후화된 여의도 DC 개선을 위해 지난 해 3월부터 전산실 재구축을 시작했다. 이후 1년6개월간 전산장비(서버, 스토리지 등) 650여대와 네트워크(증권망) 전용회선 3,700여 회선을 서비스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이전하는 데 성공했다.

- 이번 재구축 과정에서 코스콤은 자본시장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핵심 IT인프라를 첨단시설로 고도화 했다.
- 정전과 통신마비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장애에 대비해 기반시설과 네트워크를 모두 이중 회선으로 구성했다. 특히 전산실 내 향온·향습 등을 담당하는 공조시스템은 냉각수 방식이지만 전산실 내부에 물배관이 없는 설비를 적용해 침수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였다.
- 네트워크는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도록 초고속 증편망 전송장비(10Gbps)와 최신 광케이블(40Gbps)을 적용했다. 회선속도를 기존 시설보다 3~4배 높여 향후 늘어날 초고속 네트워크 시장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.
- 또한 전산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상품별로 정렬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. 이를 통해 연간 전력료를 20%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고밀도·고집적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환경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다.
- 개소식에 참석한 정지석 코스콤 사장은 “이번에 성능이 개선된 데이터센터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들의 수요에 답할 수 있게 됐다”며 “향후 자본시장 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금융IT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설명했다.
- ▷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www.koscom.co.kr